

# 第64回 發明教室

6月 10日, 成功事例 등 發表

- ... 本會는 지난 6月 10日 特許廳 研修室에서 第64回 發明教室을 開催했다. ....○
- ... 每月 둘째 土曜日 午後 1時에 開催되는 發明教室은 이달에도 200여명이 參席...○
- ...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發明教室에서는 (주)윌드크라운 金正煜사장과 서...○
- ...울종합유리(주) 陳貞基사장의 成功事例 發表에 이어 洪載日 辨理士의 「工業有...○
- ...權制度」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
- ... 두 發明人의 成功事例를 간추려 紹介한다. ....〈尹榮洵 記〉...○

## 新素材 「정기스톤」 發明人

서울종합유리(주) 陳 貞 基 사장

중학교 졸업학력과 18年동안 현장에서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유리를 이용한 新素材 「정기스톤」(特許出願 第86-143號)을 發明해 서울종합유리(주)의 사장이 된 陳貞基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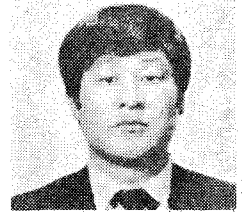
중학교 졸업이 學歷의 전부인 陳사장은 15세때인 68년부터 현재까지 유리분야에서 몸담고 일한 전형적인 匠人 출신이다.

陳사장이 정기스톤 發明을 결심한 것은 지난 79年 明洞의 賣場 공사를 하면서였다. 내장 공사를 하는데 日本製品인 화이트스톤이 수 없이 깨지는 것을 보고 깨지지 않는 스톤을 만들어 보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陳사장이 깨지지 않는 스톤 研究를 위해 찾아간 곳은 熱처리 가공기계가 있는 S社. 18年간의 유리加工의 경험이 있는 陳사장은 그 분야에선 이미

전문가였다. 3個月의 研究끝에 드디어 깨지지 않는 스톤을 發明해 자신의 이름을 붙여 「정기스톤」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陳사장이 發明한 「정기스톤」은 대리석보다도 強度가 2배나 높고, 대리석 대응 유리제품인 「화이트스톤」보다는 10배가 높다. 또한 특수熱처리를 통해 色相이 변질되지 않고 平面이나 曲線등 다양한 용도처리도 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대리석보다 가벼워 빌딩의 荷重을 덜 수 있고 특수 접착제를 이용한 간편한 시공으로 건축비용을 절감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제품의 가격도 저렴하다. 그러나 陳사장의 研究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곧이어 깨지지 않는 스톤에 色相을 코팅하는 方法까지 알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86 1月 特許廳에 特許出願을



〈陳貞基 사장〉

마치고, 같은해 4月 15일부터 10月 14일까지 本會 發明獎勵館 無料展示를 하기도 했다.

그후, 陳사장은 20여가지의 응용품을 개발했다. 또한 88년 9월에는 (주)금강과 대리점을 체결하여 매출의 급성장을 이룩했으며, 서울내에 1천3백평의 유리매장을 소유하게 되었다. 현재, 陳사장은 원주에 공장을 建立中이며, 그것이 완성되는 내년에는 공사발주 예상액이 3백억에 달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